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6절)



가족 사진: 알바니아, 두로스 외각 현지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새로이 승선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2주동안 진행한 신 선교사의 침과 아이들 방학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저희는 알바니아 블로러 **Vlore** 와 티라나 **Tirana** 수도에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블로러에서는 알바니아 남부를 둘러보기도 하고 티라나에서는 신 선교사의 대학원 동기 선교사님의 가정도 방문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휴가 기간동안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고생을 좀 하였지만 육지에서 쉼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석훈 선교사님 가정에 초대 받아



두로스 항구에 도착한 로고스호프 위한 환영식



현지 교회 가정 집의 담벼락 공사 중에

저희가 휴가를 가지는 동안 로고스 호프는 알바니아의 두로스 **Durres** 항구로 옮겼습니다. 두로스 항구에는 블로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엠 알바니아와 현지 교회와 연결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학교 방문, 서적 기증, 안경 기증 사역과 지역 교회 방문 등이 있었고 선상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연극과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 로마 집시 여성들을 위한 네일, 헤어, 종이접기 등 이벤트를 열어 다양한 사역으로 그 어느 항구보다 활발히 사역하였습니다.

이번 항구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선내 서점에 직접 찾아와 눈물로 전해준 두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로고스호프가 아닌 오래전 '로고스 2호' **Logos2** 선교선이 2007년에 두루스에 방문했을 때 한 무슬림 가정의 엄마가 어린 두 자매를 데리고 배의 서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구매했던 성경 동화가 매개가 되어 가족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심겨둔 작은 씨앗이 열매가 되어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기쁨은 정말이지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에 씨앗을 심는 저희로서는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씨앗을 심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알바니아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또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알바니아를 10월 20일에 떠나 바로 위에 나라인 몬테네그로 바르 **Bar** 항구에 21일 새벽에 도착하였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신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다가 2006년 독립한 곳으로 정교회가 강한 지역입니다. 알바니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이지만 국교가 달라서인지 나라의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몬테네그로의 개신교인은 62만 인구 중에 약 300명뿐이 안되고(등록 교회 6개) 정교회가 강한 지역이기에 개신교는 이단으로 여겨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르에서의 사역은 축구 교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방문, 복지 단체에서의 급식 나눔 봉사, 몬테네그로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모임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인 세르비아(난민 캠프), 북마케도니아(무슬림 마을), 코소보(학교)에도 전도여행팀을 내륙으로 보내어 각국의 선교 사역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몬테네그로에서 저희는 오엠 크로아티아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 가정과 영국 웨일즈에서 현지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 내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된 일이지만 현지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만나 나누는 교제는 정말 격려가 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주안이와 이안이는 새로운 학기가 10월 11일에 시작되어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안이는 영어가 늘어 친구들과 제법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안이는 이번에 새로 승선한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씩씩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배의 환경상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하는 일들이 6개월 마다 일어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사랑 선교사는 선상 선교훈련 프로그램들을 기획, 진행, 강의 등 팀리더의 역할들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더욱 지혜주시기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도은혜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에게 목요일마다 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해 음식을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배에서 맺어준 ship family들을 **Ship family**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자매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자매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 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선상에서 바라본 몬테네그로 바르 항 전경



크로아티아 강민국/구한나 선교사 가정과 함께



영국 웨일즈 백유현/문유진 선교사 가정과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척박한 상황 중에도 신앙을 이어나가는 발칸 반도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2. 현재 로고스호프에 함께 승선한 약 330여명의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하고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3. 신사랑&도은혜, 주안, 이안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할 수 있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몬테네그로, 포트 노비

11월 9일 ~ 11월 21일

키프로스, 리마솔

11월 25일 ~ 12월 14일



QR코드 링크



카카오채널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